

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물관리 설명회 마련

[문찬식]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2025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 장면

(인천=국제뉴스) 문찬식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가 28일 강화군 소재 명진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를 개최, 현안을 논의했다.

설명회에는 지사 대의원,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물관리 현안 사항 공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가뭄, 태풍 등의 강도가 세지고 증가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

특히 이에 따른 물관리의 중요성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물관리 및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물관리 설명회를 통해 사업 소개, 지역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추진, 농업인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고 농업인의 안전 영농에 대한 어려움과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농업인들은 강화옹진지사가 종합 물관리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양희충 지사장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장은 "농어촌공사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인 재해 대비를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안전 영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